

양림동 근대골목-푸른길 연계 탐방로 개설해야

광발연, 지역별 특화사업 등 장기비전 제시

예술의 거리, 고미술품 특성화거리로 조성해야

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자원 밀집 지역인 공동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 시장,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양림동 등 4개 지역이 주민들의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지속발전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화 사업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지속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화지원 밀집지역 진단=26일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부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광주시 문화마을 자생

력 제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4개 지역의 문화 관련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임대료 상승, 도시 계획 지연, 방문객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예술의 거리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거점육성' 사업으로 인해 상가변영회 임원과 비회원의 갈등이 내구대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랑, 표구 상점 등의 밀집도는 높지만 구매자들의 발길이 줄고 있고, 새로운 작가 발굴

과 고미술품 발굴·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인예술시장에 대해서는 작가와 상인의 갈등, 작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의 등록문화재 30%가 밀집된 양림동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의 자원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시화문화마을은 장기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김 연구원은 새로운 육성전략을 수립해 살아가는 생물과도 같은 문화마을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의 거리는 고미술과 관련된

체험, 교육, 판매(경매) 등이 모두 가능한 광주권 대표 고미술 문화거점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가 검토 중인 '아시아 예술품거래센터' 등의 구축을 대비해 화랑별로 희귀품과 고미술에 관련한 이야기를 발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인예술시장은 시장 내 작가들의 문화예술품이 소비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수와 모던이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산책'이라는 비전으로 저가의 아트상품을 개발하고, 상인 등 시민기획자를 발굴해 문화 창조 집단 밀집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림동은 역사와 자연 등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담당하는 '양림역사소사이어티'(가칭) 등을 만들어 마을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리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조성, 사적공원과 양림동, 푸른길을 연계한 탐방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화 시화문화마을에는 지역 문화 네트워크들이 개방적으로 모임을 열 수 있는 '예술실험센터사랑방'(가칭) 등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27일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광주발전연구원 2013년도 연구성과 시민 보고회'에서 발표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현오석 부총리 "종교인 과세 추진"

파생상품·금융융역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시 종로구 국제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 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융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거듭 과세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엔벨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특장제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선했다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특장제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월세 10% 돌려준다"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세 세입자는 지원 줄어

감수록 월세가 늘어나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초가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임차인)들은 자가나 월세에 비해 전세의 주거 비용이 적어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거주유형별 주거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자가, 전세가 가장 낮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셋값 상승에 대응해 저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 등으로 전세 지원을 강화해왔지만, 향후에는 월세에도 좀 더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세 임대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제 아예 세

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지원해줬으나 앞으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해준다.

월세 세입자는 한 달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4500만원이면서 50만원짜리 월세집에 사는 사람의 경우 지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54만원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3000만원 근로자가 똑같이 50만원짜리 월세를 산다면 혜택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가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등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된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닭·오리고기 익혀 드시면 안전해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오리농장과 식당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식업 중앙회 광산지부회원들이 26일 광산구청 광장에서 오리·닭 소비촉진 무료시식회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안 고용률 1위 광양 실업률

전남 22개 시·군 중

전남 22개 시군 중 2013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 1위는 신안군, 실업률 1위는 광양시로 각각 밝혀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9개도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75.5%)으로 전국 군 단위 평균치(65.9%)를 크게 상회했다.

이어 해남군(71.7%), 고흥군(71.6%) 등이 순이었다.

특히 신안군 고용률은 전국 군 가운데 경북 울릉군(79.3%), 전북 장수군(75.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나누시는 전국 시지역 평균(58.1%)을 크게 웃도는 65.2%로 도내 15위였으나, 전국 시 기준은 5위로 높은 수치였다.

도내에서 고용률 최저는 목포시(55.4%)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은 광양시가 전국 시지역 평균(2.6%)보다 0.1% 포인트 높은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수시

(2.3%), 순천시(2.0%) 등이 순이었다. 최저는 함평군과 고흥군 등 2개 군이 0% 수준으로 전국 군지역 평균 1.0%보다 크게 낮았다.

이 밖에도 담양·곡성·장흥·완도·신안 등 농어촌 군 지역은 0.1~0.2%의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거주 인구 대부분이 농어업에 직접 종사해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률 지표가 되는 실업자 구직활동도 기업체가 적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통계상 0%대의 실업률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신안군이 75.6%로 수위였고, 해남군(71.9%), 고흥군(71.6%) 등의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서 할인 최대 15%... 출판계 도서정가 합의

오프라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는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한데 합의했다.

출판·서점계에서는 그동안 정가 도서 할인 폭을 놓고 이해 당사자가

평평하게 맞서왔다. 이번 합의의 할인안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묶였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알림

'폭설 피해 이재민에게 희망을'

광주일보와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올 겨울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 폭설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모금은 피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기간: 3월 31일까지 ■ 예금주: 전국재해구호협회 ■ 인터넷 기부: www.relief.or.kr ■ 문자기부: #0095(1건당 2000원) ■ 문의: 1544-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4990-72-003752 농협 106906-64-003747 신한은행 5620-28-88597633 우리은행 001-098482-18-953 하나은행 116-921005-14337
--	--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 취급대출: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 전화: 각화지점: 268-6163 / 품암금호지점: 651-6167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